

“한파 가고 봄기운 물씬”... 유통가, 봄맞이 행사 다채

광주신세계, 23일까지 S/S특집전 예비부부 겨냥 ‘가전·가구’ 행사도 롯데백, 신학기 가방·의류 등 할인 적립금·상품권 증정 ‘웨딩페어’도

추위가 한풀 꺾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봄맞이에 돌입했다. 새출발을 알리는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모션으로 고객들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신규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S/S(봄·여름 시즌) 특집전을 연다. 대표적으로 메그제이(30~60%), 제너럴아이디어(40~70%), 비터셀즈(최대 40%) 등이 참여해 봄·여름 의류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봄맞이 고객잡기에 나선다. 헤지스레이디스, 지컷, 막스마라, 듀엘, SJSJ 등 패션의류 브랜드들은 매장별로 70% 이상을 신상품으로 교체하며 다양한 ‘2025년 S/S 신상품’을 선보이

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봄맞이 신학기 품목들도 준비돼 있다. 헤지스키즈는 28일까지 6층 본매장에서 책가방세트와 아동 의류 등을 40~6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베네통키즈, 내셔널지오그래픽키즈, 휠라키즈 등도 신학기 베스트 책가방과 다양한 아동의류를 선보인다.

백화점업계는 봄 웨딩 시즌을 맞아 미리 혼수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웨딩페어’도 진행한다.

먼저 광주신세계는 16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과 본관 8층 가전·가구매장에서 예비부부들을 위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자체 혼수클럽에 가입할 경우 500만원 이상 구매 시 무상 AS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준다. 가전 600만원 이상 구매 시 ‘실리트’ 냄비세트를 증정한다. LG전자는 웨딩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4% 추가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혼수에 빠질 수 없는 침대와 소파 등 가구 브랜드들도 선보인다.

‘에이스’는 침대 사이즈 등급별 추가 할인을 최대 3~15%까지 진행하며 매트리

스의 경우 품목별로 베개와 베딩 세트를 증정한다. 에이스의 ‘웨딩 멤버스’를 가입할 경우 금액대별 사은품도 증정한다.

‘시몬스’는 광주신세계에서 단독으로 프레임, 톱세트, 베딩 등 일부품목에 한해 30% 이상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매트리스는 최대 20%, 프레임은 10% 할인혜택이 준비돼 있다.

‘도레’는 특가상품에 한해 최대 30%에 추가 3% 할인혜택을, ‘봄소와’는 전 품목 7%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신혼부부들의 거실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유명한 ‘캄포’ 소파를 판매하는 ‘까사미아’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구매시 추가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14일부터 23일까지 ‘All about Premium Wedding(프리미엄 웨딩의 모든 것)’을 키워드로 ‘롯데웨딩페어’를 진행한다.

먼저 명품부터 리빙까지 총 1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웨딩마일리지’는 롯데웨딩멤버스 가입 후 9개월간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금액을 적립해누게 적립 금액의 최대 7% 상당을 롯데상품

권으로 증정하는 리워드 제도로, 웨딩페어 기간 브랜드에 따라 구매 금액의 최대 2배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준다. 대표 브랜드로는 ‘프라다’, ‘톰브라운’, ‘다이슨’, ‘로보락’, ‘에이스’, ‘시몬스’, ‘알레르망’, ‘소프라움’ 등이 있으며, 지점별로 참여 브랜드는 상이하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는 구매 금액에 따라 웨딩마일리지 100만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특별 혜택과 더불어 16일까지는 구매금액의 최대 9.5%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17일부터 28일까지 롯데백화점에서는 웨딩페어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도 최대 60만점의 웨딩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의 우수고객 제도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PRE-AVENUE(프리 에비뉴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매년 롯데웨딩멤버스 신규 가입 회원의 30% 이상이 다음해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는 만큼, 웨딩마일리지 적립 구매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라온지 입장 및 다과 제공, 발렛 파킹 등 일부 우수고객 혜택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이외에도 롯데아울렛은 16일까지 ‘2024년 겨울 아우터’와 ‘봄 특가 상품’을 동시에 선보이는 ‘봄겨준비 시작해봄’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신상품 겨울 아우터를 예년보다 빠르게 아울렛 특별가로 판매한다. ‘스노우 피크’에서는 ‘유틸리티 스탠드넛 헤비 다운 자켓’ 등 8개 인기 아우터를 롯데아울렛 단독으로 최대 30% 할인 판매하며, ‘아이더’는 지난해 F/W 인기 상품 ‘스투키 M UNI 다운 자켓’을 약 40% 할인 판매한다. 이외에도 ‘내셔널지오그래픽’, ‘블랙야크’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와 ‘듀베티카’, ‘아이잘바버’ 등의 패션 브랜드를 포함해 총 4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새 학기 준비를 위한 특가 상품들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활라’, ‘다이나핏’ 등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백팩 등 신학기 제품을 최대 65% 할인해 점포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닥스키즈’, ‘헤지스 키즈’ 등 유명 키즈 브랜드에서는 가방 상품 한정으로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브랜드 및 행사 내용은 지점별로 상이하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발렌타인데이 추천 와인 선봬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오는 16일까지 달콤한 스파클링 와인과 더불어 연인과 함께하기 좋은 다양한 와인을 추천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지하1층 와인 본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인기 만화인 ‘신의 물방울’의 작가가 직접 심사한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스파클링 부문 1위를 차지한 ‘브라운 브러더스 프리미엄 퀴베’를 롯데 단독으로 선보이며 그 외에 ‘간치아 모스카토 로제’, ‘보시오 트로피칼 모스카토 자몽’ 등 부담없이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을 품목 별로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제안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현대차·기아, 美 ‘모하비 주행시험장’ 20돌 기념행사

정의선 회장 “혁신에 핵심 역할” 5000여대 차량 주행 시험 거쳐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의 품질 경영을 상징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행시험장(모하비주행시험장) 설립 20주년을 맞아 현지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13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10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시티에 위치한 모하비주행시험장에서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완벽한 품질과 성능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연구원들을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완성차 담당 부회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 양희원 사장(R&D 본부장) 등이 참석해 임직원들과 모하비주행시험장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지난 20년 동안 모하비주행시험장과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AI, 로봇 공학, SDV, 전동화, 수소



현대차·기아는 10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시티에 위치한 모하비주행시험장에서 설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정의선 회장이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사인을 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

기술과 같은 선구적인 기술에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혁신을 위해 모하비주행시험

장과 같은 연구시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현대차·기아는 모하비 사막 한 가운데 약 1200억 원을 투자해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1770만㎡(약 535만 평) 규모의 모하비주행시험장을 건립했다.

주행시험장은 △10.3km의 타원형 고속주회로와 △6개 기술기로 구성된 등판성능 시험로 △5km의 와인딩트랙 △18종류 노면의 승차감 시험로 △오프로드 시험로 △미국 고속도로 재현 시험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승차감과 핸들링 평가부터 소음, 진동 및 내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54℃를 넘나드는 기후를 활용해 열 내구성 평가나 냉각 성능을 검증한다. 지금까지 5000여대의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이 약 3200km 이상의 혹독한 주행 시험을 거쳤다.

가혹한 테스트와 실도로 조건 이상의 ‘담금질’을 통해 완성된 신차들은 지난 2010년 글로벌 톱 5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인 2022년 처음으로 세계 판매 3위에 올랐으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소영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재테크 칼럼

무너지는 부동산,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부동산시장이 상가와 주택을 가릴 것 없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만 보더라도 지난 1월 거래량이 1만 8000여 건으로 전년도 대비 40% 줄었다. 반면 부동산 경매 건수는 2024년 약 14만여 건으로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대비 32% 폭증이다. 2022년과 대비해서도 2배가 넘게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경매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불황의 늪에 빠졌다는 전형적인 신호다. 부동산시장은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된 2022년에 급격하게 무너질 조짐을 보였으나 정부에서 청년 특례대출, 신혼대출 등 갖가지 명목으로 부동산 대출을 풀었고 주택 관련 규정을 완화하면서 시장을 떠받쳤다. 억지로 집값을 올리는 자유시장 원칙에 역행하는 상황이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지나치게 큰 거품이 일어나 있었고 자연스럽게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적 배경이 기형적인 부동산시장을 수술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은 늘 옳고 시장의 원리를 거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담장 몇 개 세운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주택시장만 보자면 현재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시장이 양극화 되어 수도권의 집값은 재상승해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수도권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에 익숙해진 주택 소유자들이 버티면 올라간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부양책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 뿌려진 통화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크게 줄이고 있다.

유효수요충도 줄고 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유효수요충이 줄면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방의 집값도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반토막이 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겨우 10~20% 수준이다. 2018년도부터 2021년 까지의 폭발적인 상승세에 비하면 하락의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상가 부동산의 경우는 정부의 부양책도 없어서 하락의 태풍을 주택시장보다도 먼저 맞고 있다. 평균 상가 수익률이 3%라면 차라리 은행에 예금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상가 부동산의 지속적인 몰락은 주택시장의 하락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부동산시장의 어둠의 긴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